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규격),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정

마지막 위원회의 마쳐 내년 초 최종 발표 예상

데이비드 스미스

ISO45001 프로젝트 위원회(PC 283)
위원장



세계 최초로 제정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규격 ISO45001은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을 감소시킬 새로운 방안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늦어도 2018년초 ISO45001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계자들은 이 시스템의 제정 진행상황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월 23일 말레이시아 말라카에서는 ISO45001 초안 작성을 위한 마지막 위원회의가 열렸다. ISO45001의 윤곽을 미리 알아보고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데이비드 스미스(David Smith) 프로젝트 위원회(PC 283)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다.

위원장님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영국의 국영 철도회사에서 34년간 기술 역량 개발 분야를 연구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조직 내 산업안전보건관리와 근로 환경관리를 지원하면서 법의학과 사고·화재 조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제가 산업재해 문제, 기업경영시스템 제정 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90년, 안전보건에 대한 오랜 경력과 꾸준한 관심을 바탕으로 영국표준협회(BSI)의 표준화 작업에 참여하였고, 이후 1992년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초안을 작성하는 국가위원회의 의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ISO45001 제정을 위한 프로젝트 위원회(PC 283)의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안전에 대한 신념 또는 철학이 궁금합니다.

근로자들이 사업장으로 출근할 때의 모습 그대로 건강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안전입니다. 사업장에서 안전보전이 지켜지지 않아 근로자가 산재를 입게 되면 당사자뿐 아니라 그들의 동료, 가족의 삶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즉, 사업장 내 안전을 관리하는 것은 산재를 줄이고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이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도록 돕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업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단순히 경영을 위한 도구로만 보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ISO45001를 제정하면서 가장 중점에 두었던 사항은 무엇입니까?

국가, 업종, 사업장의 규모 등을 불문하고 어느 기업이나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도전과도 같았습

니다. 규모가 크고 정교한 체계를 가진 조직에게 적합한 접근법이 소규모 조직에게는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뿐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에서도 ISO45001을 채택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이 부분을 조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ISO45001는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도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과정이 아닌 결과 지향으로, 'P-D-C-A' 사이클을 기반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기업이 ISO45001을 도입했을 때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OHSAS18001은 제정된 후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현재의 사업장 상황과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ISO45001은 고도화된 최근의 산업현장에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ISO45001을 채택하게 되면 ISO9001(품질경영), ISO14001(환경경영)과 같은 다른 ISO 표준과의 호환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기업이 관리경영시스템을 통합하고 정렬할 때 프로세스의 중복을 피하는 것이 더 쉬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밖에도 ISO45001은 최고 경영자 및 관리자가 조직의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끌고, 근로자들이 사업장 안전관리에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널리 보급·정착되어 많은 기업에서 그 효과를 얻길 기대합니다.

기업이 ISO45001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환경까지 신경써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ISO45001에 새롭게 도입된 개념으로 '맥락(Context)'이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 근로자, 사업장 주변 거주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Interested Parties)들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ISO45001의 새로운 요구사항인 '맥락(Context)'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시행 결과에 영향을 주는 내·외부적 요소가 무엇인지 찾아내야 합니다. 즉, 효과적인 사업장 위험관리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이미지 제고 등 기업 경영에 따른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이제 기업경쟁의 필수조건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사업장 외부 요소들이 조직의 비즈니스 활동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고, 그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ISO45001은 여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ISO45001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십니까.

ISO45001을 선도적으로 도입하려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 기업을 통해 ISO45001을 도입하면 기업경영에 있어 다른 기업들보다 유리하다는 사실이 입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업들이 뒤따라 이 표준을 사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기적으로는 10년 이내에 최소 50만 개의 조직이 ISO45001을 채택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ISO9001(품질경영)에 등록된 조직은 백만 개가 넘고 ISO14001(환경경영)에 등록된 조직은 약 35만 개에 달하고 있는데, 위원회는 이러한 수치를 참고해 '50만 사업장'이라는 목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계자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시행할 때에는 경영자와 관리자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합니다. ISO45001을 채택하시고, 다른 사업장에서도 이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장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작업현장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해지도록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